

전시 서문의 스펙트럼

아트인컬처 평론 프로젝트 '피칭' 제28회 선정자

PITCHING

2026 / 05 / 13

강다원

전시 공간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 중 하나는 전시 서문이다. 관객은 벽에 적힌 글 앞에 멈추거나, 낱장으로 인쇄된 핸드아웃(handout)을 향해 손을 뻗는다. 이러한 서문은 20세기 초, 현대 미술관에서 월 텍스트(wall text) 형태로 관객 교육을 위해 활용되었다. 오늘날에도 국공립 미술관이나 비엔날레 등 대형 전시에서 월 텍스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시장 곳곳에 산재한 작품을 엮어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관객을 일련의 흐름으로 유도하는 것이 서문의 주요 기능인 만큼, 다수의 시민 관람객이 방문하는 전시의 서문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 친절한 길잡이가 되기를 요구받는다.

한편, 교육적 목적에서 이탈해 비평가와 기획자의 글쓰기 실험이 돋보이는 서문도 존재한다. 주로 오늘날 미술계 곳곳에 자리한 독립 예술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곳의 핸드아웃은 생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관객이 텍스트의 여백 사이에 진입하여 글과 전시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게 한다. 독립 예술공간들의 전시는 국공립 기관의 전시에 비해 짧은 기간, 대략 2주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이 시기에 맞추어 전시기획자, 작가, 디렉터를 포함해 임시로 참여하는 다수의 필진이 텍스트를 생산한다. 이와 같은 운영적 특성은 서문을 소설이나 편지 같은 형식적 시도로 이끄는 한편, 필자의 고백을 투영할 수 있는 실험의 장으로도 확장한다.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되는 기획, 참여 작가와 필자 사이의 잦은 소통은 '내밀한 글'을 탄생시킨다. 대중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목표보다는 전시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와 고백적 태도를 다루는 텍스트가 공개되는 것이다.

미학관에서 열린 <3040>(2022. 1. 27~2. 20)전의 서문은 기획자 이문석이 편지 형식으로 썼다. 기획자는 본 글이 서문을 대신하는 편지임을 밝히며, 기존의 서문과 해당 글을 구분한다. 그러나 그의 글은 기획 의도, 작가, 작품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서문의 조건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글의 초입과 말미에 필자의 주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쓰인 서문은 공간에 고정된 작품을 일방적으로 해설하지 않고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며 능동적인 전시 읽기의 방식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수동적 독자에서 벗어나 편지의 수신인으로 호명되며 전시와 한층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한편, 스페이스애프터의 <글과 종이>(2024. 11. 15~12. 8)전에서는 유운성 비평가가 서문의 필진으로 참여하였는데, 그는 이문석과 유사하게 "안소연 평론가의 비평집 『글과 종이』(해적프레스, 2024)에 대한 서문이나 추천사나 해제를 쓰는

것이었던 이런 글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다. 이는 필자의 자의적 감상과 태도가 전시를 ‘여는 글’이 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는 여느 전시처럼 실제 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서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술계의 익숙한 관행을 내비친다. 때로는 관객에게 지침이 되는 텍스트가 실은 불안정한 과정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대목이다.

고현아 개인전 <Earworm>(2024. 2. 21~3. 3 예술공간의식주)을 기획한 윤형신은 전시를 둘러싼 기획자, 작가, 비인간 생명체의 시점에서 서문을 전개한다. 이 글에는 다중의 시점이 교차하여 대사로 진행되는 희곡, 혹은 설정된 인칭을 따르는 소설을 상기시킨다. 기획자와 작가, 전시장을 맴도는 초파리와 관객 등 전시 안팎에 연루된 존재의 묘사는 관객에게 등장인물, 관찰자, 독자의 층위를 부여한다. 여기서 작품을 향한 기획자의 질문과 다양한 존재의 시선이 얽히며 하나의 전시에 관한 다층적 해석이 유도된다. 기획자의 추측과 작가의 기억이 함께 있는 서문은 단순한 안내의 목적을 넘어 큐레이토리얼 실천을 보여주는 문서가 된다.

종종 서문에는 전시라는 명사 뒤에 ‘-위한’, ‘-둘러싼’, 혹은 ‘-에 수록된’처럼, 텍스트를 특수한 시공간에 귀속시키는 수식어가 따른다. 전시 종료 이후 서문은 본래의 목적을 잃은 채 어렴풋이 전시를 상기시키는 불완전한 아카이브로 부유한다. 짧은 주기로 만들어지는 독립 예술공간의 전시는 더욱 한곳에 정착하기 어려운 텍스트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전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의 증언에 의존해 쓰이는 오늘날의 파편화된 텍스트들을 떠올려보자. 이처럼 상상에 기대어 쓰이고, 기억 속에 저장되는 서문은 어딘지 불온해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 필자의 솔직한 고백과 자기반성, 잠재적 관객을 향한 편지 형식의 서술이 가능해진다. 유랑하는 전시 위에 세워진 무수한 텍스트는 보이지 않는 ‘다음 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경 · 고현아 개인전 <Earworm> 전경 2024 예술공간의식주 제공